

삼겹살 도매가 3배 급등 동물복지 강화 효과



▲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중인 베이컨. 사진=shutterstock

동물권 강화를 위해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미국의 삼겹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 내에서 베이컨용으로 팔리는 삼겹살의 도매가격이 최근 3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국 삼겹살 도매가격은 지난 5월 하순만 해도 1파운드(약 450g)당 0.7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2.3달러로 급등했다.

WSJ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동물복지법 때문이다. 이 법은 육류업자들에게 돈육 생산용 돼지에 최소한 24제곱피트(약 2.2㎡) 넓이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돼지의 돈육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WSJ은 현재 미국 돼지 사육업체 중에서 마리당 24제곱피트(약 2.2㎡) 넓이의 사육 공간을 확보한 업체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베이컨 판매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라는 점이다.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법은 7월 1일자로 발효됐지만,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와의 협상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겹살 도매가도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WP “무더위 날리는 덴 ‘한국 찜질방’ 이 최고”

최근 미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더위 탈출 비법’으로 한국식 ‘찜질방’을 소개해 주목받고 있다.

1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WP는 전날 “40달러만 내면 한국식 사우나인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며 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다.”면서 “추가 요금을 내면 얼굴 마사지 등 다른 미용 시술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입장객들은 온탕과 냉탕뿐만 아니라 적외선방, 소금방, 한증막 등의 다양한 건식 사우나도 즐길 수 있다. 또한 한국식 불고기와 밥, 음료 등도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WP는 ‘더위 탈출’ 비법으로 한국식 찜질방 외에도 ‘아이에게 수영 가르치기’, ‘더위 불평 그만하기’, ‘냉장고 냉동 칸에 머리 넣기’, ‘현관 앞 그늘에서 휴식하기’ 등을 소개했다.



▲ 서울의 한 찜질방의 냉방 돤 안에서 찜질 중인 입장객들. 사진=easytravelrecipes.com

피서용으로 강력 추천한 곳은 ‘냉방’ (cold room)이다. WP는 “냉방은 냉장고나 마찬가지로 ‘냉방과 온탕을 오가면 원기 회복과 함께 숙면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매체는 또 “찜질방이 한국식 목욕탕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입을 옷이 제공되지만, 목욕탕에선 옷을 벗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계

온라인에 밀려 ‘파산 소송돌이’ 빠진 쇼핑몰

온라인 쇼핑 증가로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쇼핑몰도 도미노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의 쇼핑몰 가치가 최고점이던 2016년 말에 비해 50~70%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쇼핑 습관이 변하고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 소매업체들이 폐점하면서 쇼핑몰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세계 최대 소매업체였던 시어스와 미국 3대 백화점으로 꼽히던 JC페니가 2018년 파산했다. 프리미엄 백화점 니먼마커스와 중저가 백화점 JC페니도 2020년 사업을 접었다. 미국 3대 백화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메이시스도 2020년부터 100여 개의 점포를



▲ 미국 3대 백화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메이시스 백화점. 사진=shutterstock

폐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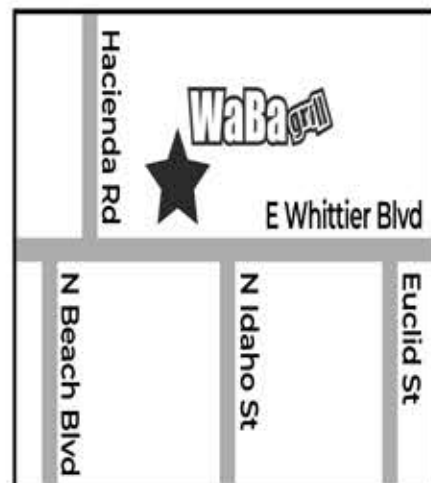
미국 부동산 조사 업체인 그린스트리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875개의 백화점 매장이 사라졌다. 올 들어선 생활용품업체인 베드베스앤드비온드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다른 오프라인 소매업체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빈스 티본 그린스트리트 소매업 총괄은 “쇼핑몰에 입점한 백화점이 없어지면 쇼핑몰 전체 매출이 줄고 결국 업체가 연쇄적으로 떠나게 된다.”며 “쇼핑몰들은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일부 쇼핑몰 부지를 호텔이나 기업 기숙사 등이 들어간 복합센터로 재개발하려 하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